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10. 29.(화)

정책대출을 실수요 서민에 차질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

<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10.29) >

◆ “집값이나, 저출생이나 정책충돌에 시장 혼선”

○ 디딤돌대출 한도는 축소하고,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상 확대

□ 디딤돌대출*은 무주택 서민, 신혼·출산가구 등에게 저리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, 중·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나,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이 없도록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
*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“정책대출”로, 신생아특례대출 포함

○ 이에 정부는 지역별, 대상자별, 주택유형별로 상이한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
□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도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·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부서 < 총괄 >	주택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수호 (044-201-3337)
	주택기금과	담당자	사무관	권지현 (044-201-3339)